

II. 한우산업의 현황과 전망

허 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팀장)

1. 한우산업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에 따라 이제 몇 달 후면 쇠고기와 생우 시장이 개방되고, 이로써 모든 축산물의 수입이 자유화된다. 현재 유제품을 제외한 대부분 축산물의 관세율은 20~42%로 이미 낮은 수준이며, 쇠고기는 2001년 41.2%의 관세로 자유화되고 2004년까지 관세율을 40%까지 점차 낮추어 나가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차기 WTO 협상에서는 관세의 감축 폭과 감축방식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쇠고기 수출국들은 이미 정해진 관세 감축 계획보다 더 큰 폭의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의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된 이후 쇠고기 수입이 증가해 왔으며,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한우 사육농가 수가 감소하였으며, 1997년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우우 사육농가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 있다.

그 동안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대비하여 정부가 추진하여 온 대책은 양축가들에게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품질경쟁력을 제고하여 취약한 가격경쟁력의 한계를 보완토록 하는데 초점이 모아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98년간 소 과다사육과 쇠고기 소비침체로 소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소 사육두수가 감소하기 시작였고, 2001년 쇠고기 및 생우 수입자유화 시기가 다가오면서, 소 가격이 크게 하락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감소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특히, 소규모로 대표되는 번식농가들을 중심으로 사육을 포기하면서 번식기반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양축농가의 불안감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 향후 한우산업을 전망하고자 한다. 한우 산업을 전망하기에 앞서 전망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변수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생우의 수입 가능성 검토

양축농가의 불안감은 쇠고기 수입 자유화에도 연유하지만, 생우 수입에 대한 불안이 더 큰 것 같다. 먼저 생우의 수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생우가 수입된다면 큰 소이기보다는 송아지 수입의 가능성이 높다. 사육을 목적으로 송아지를 들여 올 가능성은 있지만, 큰 소를 수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관심은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경쟁 가능한 한우 송아지의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모아진다. 미국에서 송아지를 수입한다고 가정하고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검토해 보자.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육 밀소 가격은 대략 100 파운드당 82.4달러 수준이다. 비육밀소의 평균 체중이 600~650 파운드 정도이므로 평균체중은 약 283.5kg정도가 되어, 두당 가격은 515달러 정도가 된다. 환율을 1,150원으로 가정하여 적용하면 59만 2천원이 되는데, 한우 송아지의 평균체중인 125kg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환산하면 26만 1천원 정도로 우리 나라 송아지의 평균가격에 1/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 수준이 우리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가격은 아니다. 이 가격을 미국에서 선적(FOB)하는 가격으로 본다면, 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까지 수입되는 제비용을 더해 도착가격(CIF 또는 C&F가격)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선적 가격에 운송관련비용과 검역수의사비 그리고, 생우를 수입하므로, 운송기간 동안 소요되는 사양관리비 등이 추가된다. 보통 보험료는 총 금액의 5% 정도의 수준이지만, 여기서는 생축의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보험료를 포함시키지 않고 C&F가격으로 계산해 보자. 이제까지 생축이 수입된 경험은 거의 없어, 종축(종우, 사슴) 또는 종마의 수입비용을 감안하여 보면, 중간 제비용이 1,400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용은 공항 도착까지의 비용이다.

공항에 수입된 비육밀소는 통관을 거쳐 중간 유통마진이 포함된 뒤 농가의 손에 들어오게 된다. 생우의 수입관세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는 결정되어 있으나 그 이후의 관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 이후의 관세는 2004년 관세 40.0%를 그대로 적용하고, 부대비용 및 이윤을 각각 kg당 30원과 10%를 적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구한 비육 밀소 가격수준을 한우 송아지 평균체중 상당가격으로 환산하면 140만원 정도가 되어, 국내 송아지가격이 이 수준을 넘지 않는 한 생우 송아지 수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수입제비용은 일회 수입 규모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낙관하기만은 어렵다.

3. WTO 쇠고기 패널의 진행상황과 향후 영향에 대한 검토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쇠고기 구분판매에 대한 WTO 쇠고기 패널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구분판매 외에도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쟁점사항들은 2001년 쇠고기 수입이 자유로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들이며, 한우산업의 입장에서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보이지는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다만, 구분판매제도가 폐지된다면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88년 8월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이후 쇠고기의 수입이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수입재개 당시 국내 소 가격이 높게 유지되어 수입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 가격이 계속적으로 급등하고 수입육이 한육우 쇠고기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행위가 성행하였다.

이에 따라 1989년 말 둔갑에 의해 판매되는 저가의 수입육을 확실히 구분하여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를 대체토록 유도하여 국내 소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자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도입되고 산지 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수입쇠고기구분판매제도란 수입쇠고기는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장에서만 판매토록 되어 있는 것이다. 1997년 11월 이후 외환위기를 맞아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쇠고기가 쿼터량 이하에서 수입되자, 미국과 호주 양국은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우리 나라의 구분판매제에 대해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3조4항 위반으로 제소하였다. 제소의 내용은 수입산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있어 차별조치(비우호적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의 개설과 영업행위 면에서 신고만으로 수입 쇠고기 전문판매점의 개설이 가능하며 판매점의 숫자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국내산 쇠고기 판매점과 수입쇠고기 판매점은 동등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식육판매업 신고서와는 별도로 전문판매점 개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입 쇠고기 전문판매점이 표시된 간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국내산 쇠고기 판매점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구분판매제도에 관해서는 WTO 쇠고기 패널에서 1차 패소판결이 나왔지만, 우리 정부는 즉각 상소를 결정하여 앞으로의 반박논리 개발 등 큰 이슈로 부각되어 있는 실정이며, 승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고 딱 잘라 말하기 힘든 단계이다.

만일 구분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둔갑판매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이에 따라 국산 쇠고기의 명목으로 공급되는 양이 많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소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둔갑판매로 인해 수입육이 실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높아지게 되므로 수입량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어, 오히려 국내 가격의 유지 내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구분판매제도의 폐지로 인해 가격의 하락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국제 쇠고기 가격의 변화와 전망

WTO 쇠고기 패널의 결과 여부를 차치하고, 생우의 수입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우리 나라 쇠고기 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는 국제 쇠고기 가격의 변동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국제 쇠고기 가격은 8~9년을 주기로 변동하고 있다. 이 변동주기에 따라 2001년부터 국제 쇠고기 가격은 상승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2000년에는 국제가격이 다소 하락하고 환율도 하락하여 원화로 환산한 쇠고기 수입가격은 1999년에 비해 하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1년 이후 국제가격이 가격주기에 따라 상승국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지만 환율이 하락하여 수입가격은 약간의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쇠고기 수입가격 전망

	단위	2000	2001	2004	2010
수입가격 ¹⁾	달러/톤	3,113	3,192	3,302	3,468
환율	원/달러	1,100	1,090	1,060	1,000
수입육 소비자가격 ²⁾	원/정육500g	5,132	5,214	5,245	5,197

주: 1) 수입가격은 미국 USDA-ERS 전망치를 반영하여 CIF기준가격으로 환산된 것임.

2) 수입육 소비자가격은 수입가격에 관세, 부대비용 및 판매비를 포함한 가격임.(축협중앙 회 자료).

5. 쇠고기 수입제도의 변화

쇠고기 국제가격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 나라의 쇠고기 수입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기에 앞서, 쇠고기 수입 관련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2001년 수입개방 이후 현재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 쇠고기 수입은 UR협상에서 2000년까지 수량규제를 유지하고, 쿼터량을 매년 2만톤 이상씩 늘려 나가 2000년에는 22만 5천톤을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쿼터량 중 1994년에는 20%, 2000년에는 70%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수요자 자율구매(SBS)방식을 확대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관세 상당치(Mark-up)는 1999년 10%에서 2000년에는 0%로 된다. 2001년 수입개방 시점과 2000년간 수입조건의 차이는 사실상 관세 인하분 0.4%의 차이에 불과하다.

[표 2] 쇠고기 시장개방 조건변화와 수입 동향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수입량(천톤)	148	147	168	77	163	-
소비량(천톤)	301	323	362	345	392	-
쿼터량(천톤)	123	147	167	187	206	225
(SBS)(천톤)	37	59	84	112	124	158
마크업(%)	70	60	40	20	10	0
관세(%)	43.6	43.2	42.8	42.4	42.0	41.6

자료: 축협중앙회, 축산물수급 및 가격자료, 2000

2000년과 2001년 사이의 쇠고기 수입관련 제도적인 차이는 쿼터의 존재여부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쇠고기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쿼터량을 초과하여 수입하였으며, 1998년과 1999년에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수급조절용 수입쇠고기는 대부분 수입되었지만, 수요자 자율구매제도(SBS)에 의한 수입량은 수입이 미달하여 전체 쿼터

량보다 수입량이 적었다. 즉, 적어도 1995년 이후에는 쿼터가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해 자유화에 준 하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제도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표 2).

6. 쇠고기 수입가격과 국내산 가격의 비율의 변화

쇠고기의 수입량과 국내산과 수입 쇠고기 가격 비율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번에는 이러한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수입육 대비 국내산 쇠고기 소비자 가격비율이 1990년에는 1.97, 1995년에는 2.77으로 그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는 1.46으로 그 폭이 줄어들어 1998년에는 수입량이 7만 7천톤으로 1990년(8만 2천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1999년에는 수입 쇠고기와 국내산 쇠고기 가격간 비율이 1.52로 다시 커져 1998년에 비해 수입량이 늘어났다. 그러나 국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의 국내 소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1999년 수입량은 15만 7천톤으로 쿼터량의 76%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표 3] 쇠고기의 국내외 가격과 수입동향

	단위	2000	2001	2004	2010
수입가격 ¹⁾	달러/톤	3,113	3,192	3,302	3,468
환율	원/달러	1,100	1,090	1,060	1,000
수입육 소비자가격 ²⁾	원/정육500g	5,132	5,214	5,245	5,197

주: 1) 수입가격은 CIF기준임.

2) 수입육 소비자가격은 수입가격에 관세, 부대비용 및 판매비를 포함(축협중앙회).

3) 한우고기 소비자 추정가격은 수입육과 국내산육 소비 비중을 감안하여 추정된 가격임.

4) 자료: 축협중앙회, 「축산물가격 및 수급자료」, 각 연도.

7. 쇠고기 수요의 변화와 전망

쇠고기의 수입량은 단순히 국내외의 가격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의 변화가 쇠고기 소비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쇠고기 소비량은 국산 쇠고기 소비량과 수입쇠고기 소비량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국내 쇠고기 공급량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펴보자.

쇠고기는 1990년 이후 국민소득 증가와 경기 호황으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소비자 가격은 연평균 3.6%씩(1990~97년) 상승하였으나, 1인당 소비량은 연평균 9.8%씩 증가하여 1990년에 4.1kg에서 1997에는 8.1kg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1998년에는 쇠고기 가격은 전년 대비 8.3% 하락하였고, 1인당 소비량은 전년 대비 6.3% 감소하였다. 수익성 악화로 도축이 증가하여 한우고기 소비량은 10% 정도 증가하였는

데도 1998년 소비량이 감소한 것은 환율 상승으로 수입육의 판매가격이 상승되어 소비량이 5.5%나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199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0%에 이르러 소비량은 1998년보다 13.5%나 늘어나 1997년 수준(36만 2천톤)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한육우 가격이 20% 이상 상승하여 한우고기 소비량은 1998년보다 7.7% 감소하였다. 국제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쇠고기 가격은 1998년보다 6% 정도 상승하였지만, 수입쇠고기 소비량은 1998년 8만 5천톤에서 1999년 15만 3천톤으로 80.0%나 늘어났다. 이는 수입 쇠고기 소비가 크게 늘어났던 1995~97년의 연평균 소비량 14만 9천톤 수준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한편, 1인당 연간 쇠고기 소비량은 1998년에 7.4kg으로 감소하였으나, 1999년에는 8.4kg으로 늘어나 1997년 수준(7.9kg)보다 많아졌다.

[표 4] 쇠고기 수급 동향

(단위:천톤)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국내생산량	94.9	154.7	173.7	236.5	264.1	226.9
재고이월량	0.0	0.0	0.0	8.8	12.8	0.0
국내산 소비량	94.9	154.7	173.7	219.2	260.1	240.0
수입량	81.6	148.1	147.2	168.3	77.0	162.6
재고이월량	4.1	5.7	3.8	37.8	29.4	39.0
수입육 소비량	85.7	146.5	149.2	134.2	85.4	153.0
소비량	177.0	301.2	322.9	362.0	345.9	392.7
1인당소비량 (kg)	4.1	6.7	7.1	7.9	7.4	8.4

자료: 축협중앙회 「축산물가격 및 수급자료」, 2000

수입 쇠고기 수요증가에 힘입어 1999년 중 쇠고기 수입량은 16만 3천톤으로 늘어났지만 쿼터량 20만 6천톤보다 21%나 적은 양이며, 1998년에 이어 1999년에도 쿼터량을 소진하지 못할 형편이었다. 정부는 SBS 쿼터량이 원활히 수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SBS 수퍼그룹을 대상으로 쿼터량을 재배정한 결과, 수입단가가 가장 높은 업체와 가장 낮은 업체의 쿼터 반납량이 많아 최고급 또는 최하위급 수입육 판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도 경제 성장률이 7% 내외 수준을 달성하고 2001년 이후에는 5% 이상의 안정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쇠고기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수입쇠고기에 대한 한우고기 가격비율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수입 쇠고기 수요는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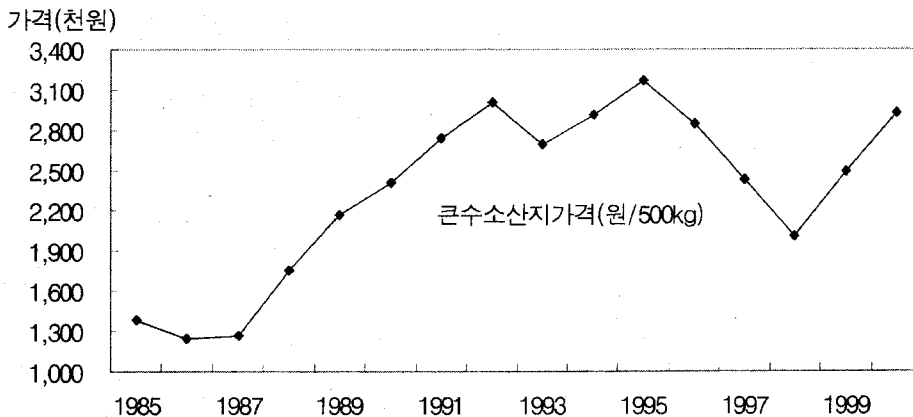
8. 한육우 비육의 경제성 변화

이번에는 국내산 쇠고기 공급측면에서 살펴보자. 국내산 쇠고기 공급은 사육두수의 변화에 의해 좌우되며, 사육두수의 변동은 국내 소 가격의 변동에 의해 좌우된다.

이제까지의 경험을 먼저 살펴보면, 1990년 이후 쇠고기 수요 증가로 한우 가격이 상승하자 가임암소 도축율이 1996년에는 10% 이하로 떨어졌다. 그 결과 1996년 9월에는 2세이상암소 두수가 122만두를 넘어서 번식기반이 급팽창하였고, 1997년 6월에는 총 사육두수가 293만두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장기간의 도축률 하락으로 가임암소가 노령화되어 1996년부터 출산율이 떨어지자 가임 암소의 도축률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6년에는 총 도축두수가 전년 대비 9.0% 증가하였고, 한우가격은 1996년 초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1] 한육우 큰소 가격 변동, 1985~99



자료: 축협중앙회, 「축협조사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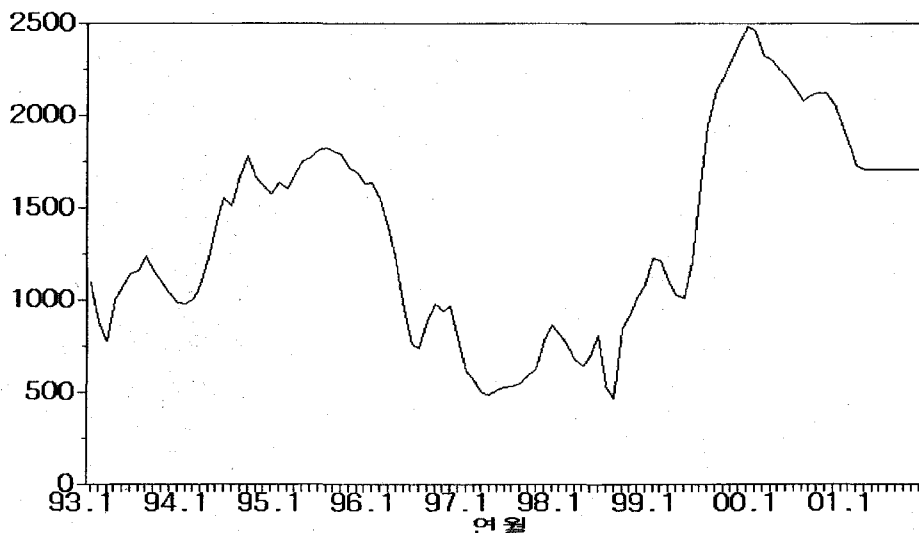
한우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암소 도축률은 더욱 높아져 1998년 12월에는 가임 암소 두수가 106만두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번식기반이 1996년 12월 대비 21%, 전년동기 대비 13%나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1999년 12월 송아지 두수는 전년동기 대비 17.3% 감소한 41만 5천두였으며, 암송아지 두수는 전년동기 대비 23.2% 감소한 30만 2천두에 불과하여 쇠고기 공급기반이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1998년 9월 이후 송아지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나, 가임암소의 절대부족으로 1999년 12월 송아지 두수는 71만 7천두로 줄어들었다. 1999년 12월 현재 암송아지 두수가 전년동기 대비 23.2%나 감소한 상태이고, 2세 이상암소 두수도 72만 6천두로 전년동기 대비 20.5% 감소한 상태여서 당분간 사육두수가 늘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육두수의 전망을 위해서는 가임암소 기반 이외에도 생산자인 양축농민이 소를 사육함으로써 얼마마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하다. 비육우를 생산하는 데 있어 드는 비용 중 가축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 가축비는 송아지를 구입하여 사육할 경우라면

바로 구입당시의 송아지 가격이 가축비가 되므로 판매시의 가격에서 구입당시의 송아지가격을 뺀 것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비육우가격에서 구입당시의 송아지가격을 뺀 수치를 일단 비육우의 경제성이라고 정의해 두자. 판매시점과 구입시점의 시간적 차이는 대략 18개월로 보고 계산한 것이 아래의 그림이다.

[그림 2] 비육우의 경제성 변동, 1993~2002



주: 1) 경제성 = 판매시 수소가격(500kg) - 구입시(1년반 전) 송아지 가격
 2) 자료: 축협중앙회, 「축협조사월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998년 후반에는 한우비육우의 경제성이 두당 40만원 수준으로 하락 하였으나, 1999년에는 소비 확대와 가격 상승으로 100만원을 상회하는 선으로 회복되었다. 2000년에는 두당 경제성이 220만원 정도, 2001년에는 17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수익 수준은 1994~96년에 비해서도 높은 것이다. 이의 의미를 찾아보면, 비육우를 하는 농가가 수익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송아지를 구입하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당분간은 송아지 가격이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9. 한육우 사육두수 전망

이러한 현상적 분석을 기초로 이제 한육우의 사육두수를 전망해 보자.

1998년 12월에는 한육우 사육두수가 283만두에 달했으나, 1년 뒤인 1999년 12월에는 195만 2천두로 감소하였고, 1999년 중 총 도축두수는 전년 대비 10%정도 감소하여 한우쇠고기 공급량은 3만 6천톤 정도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한우가격은 강세를 보여 1999년 평균 250만원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필자는 지난 1월 가임암소 부족으로 2000년에는 국내 한육우 사육두수가 177만 5천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말에 발생한 구제역의 영향으로 그나마 부족한 가임암소가 크게 줄어들어 2000년 말에 가서는 160만두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송아지생산안정제와 다산장려금제도 등의 정책효과로 2001년 이후 사육두수가 증가추세로 전환되어 2004년에는 181만두정도를 기록하며 2006년에 가서는 200만두를 돌파하고 2010년에는 228만두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 쇠고기 수급 및 가격전망

이제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쇠고기의 수급을 전망해 보자. 2000년에는 수입 육 가격이 5% 정도 하락하고 한우육 가격은 상승하여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 가격 비율이 1.75 정도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수입은 19만톤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 쇠고기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2001년부터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므로 국내 쇠고기 가격은 국제가격 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1인당 소비량은 2010년까지 11.1kg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2001년 이후에는 민간업자 수입이 자유로워지며, 수입관세도 매년 0.4%씩 인하하도록 되어 있어 수입 쇠고기 가격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육두수가 아직 부족하여 산지 가격은 계속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 개방 다음해인 2002년 이후 산지 소 가격은 다소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과 2001년에는 국내 사육두수의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산지 소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이에 따라 수입조건은 1999년에 비해 크게 나아져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수입량은 2010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5] 한육우부문 수급 및 가격 전망

		1999	2000	2001	2004	2010
수급 (천톤)	국내산	240	199	170	174	218
	수입산	135.4	192	227	281	346
	소비량	375.4	406	412	456	564
	1인당소비	8.1	8.6	8.7	9.4	11.1
산지가격 (원/500kg)		2,485	2,500~2,600	2,600~ 2,700	2,600~ 2,700	2,400~ 2,500

주: 1) 산지가격은 1995년 기준 GDP디플레이터로 디플레이트 한 실질가격임.

2) 1999년, 2000년의 산지가격 중 ()안은 경상가격.

11. 맺음말

앞에서도 강조된 것처럼 우리나라 한육우 번식기반은 이미 크게 줄어든 상태이다. 위축되어 있는 번식기반을 다시 확충하기 위해서는 번식부문에 투자와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가 현재 송아지생산안정제와 다산장려금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해 그 이상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한우산업이 빠른 시일 내에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비육우 가격 수준은 500kg 기준으로 대략 23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한우가격 너무 높게 유지되어도 곤란하다고 본다.

물론 한우가격이 높게 유지되면 농가의 입장에서 당장은 좋을 지 몰라도, 결국 높은 가격 때문에 나중에 가격하락의 폭도 커져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경쟁에서 다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충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는데, 현재의 상태로 보면, 한우산업이 단번에 경쟁력 갖추기는 매우 힘들다. 개방 이후 충격을 완화하여 안착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기준가격이 현재는 9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에서 송아지가격이 형성되는 한 효험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격은 지지의 하한 가격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농가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송아지 가격 수준이 72만원 정도인 것으로 검토되었는 바, 현재의 지지가격과 경쟁력 갖추기 위한 수준과 비교할 때 18만원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수준을 단번에 낮추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매년 2~3만원 정도씩 낮추어 나간다면 2006년 정도에 가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달성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적어도 이 때까지는 치밀한 계획 하에 정부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항상 경쟁력을 갖추려는 태세는 갖추어야 할 것이며, 농가에게 끊임없는 비용절감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상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